

Style

조선일보

NOVEMBER
2021 vol.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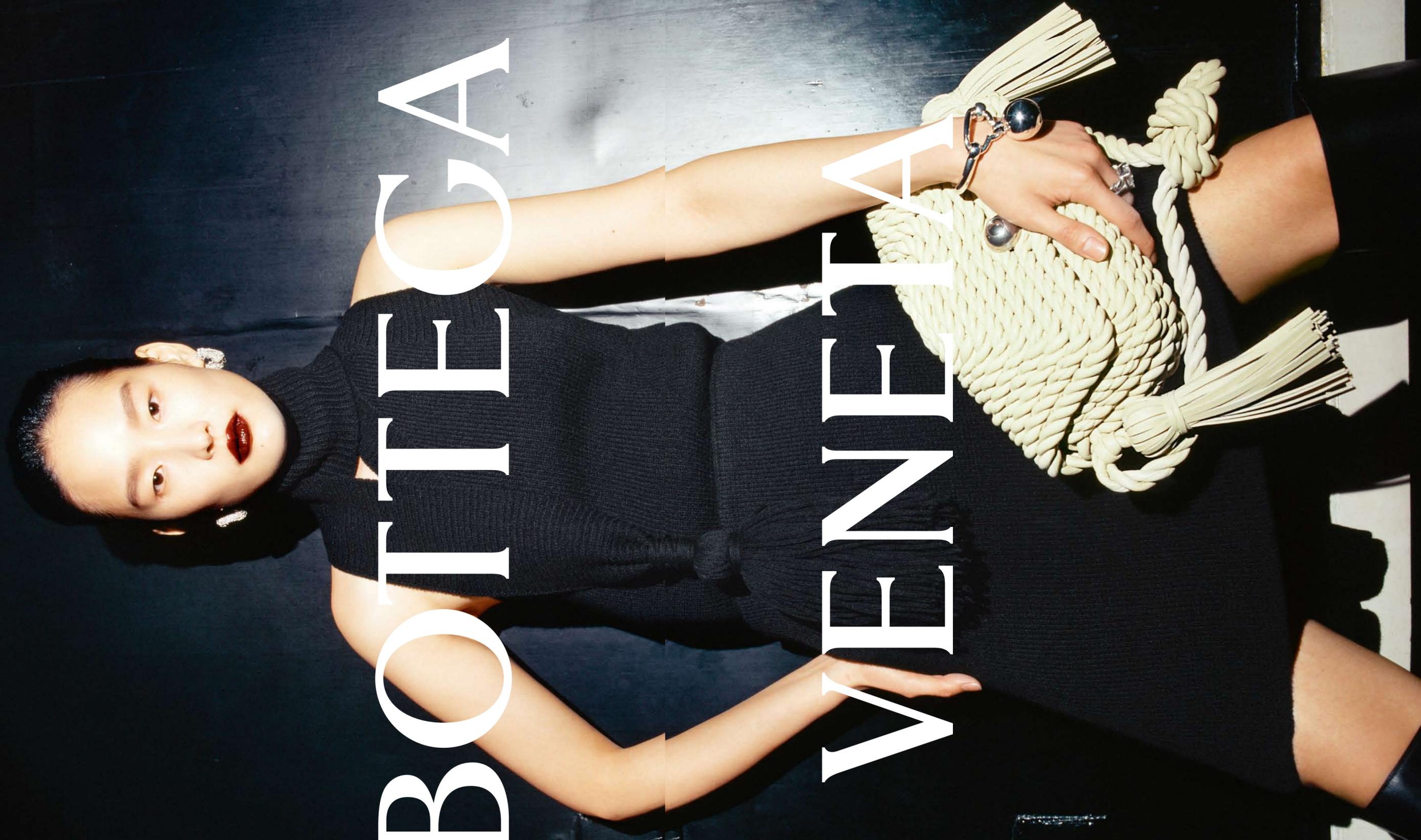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DOUBLE C
DE
Cartier



BOTTLE

VENTA



SUBLIMAGE

L'ESSENCE FONDAMENTALE
AND LE BAUME

수블리마지 레쌍스 풍다멘탈 & 르 바움

피부에 활력을 부여하고 힘을 강화하는 강력한 듀오

두 가지 특별한 스킨케어 제품은 폴리프렉서닝 과정을 거쳐 탄생한 바닐라 플라니폴리아*의 강력한 에너지와 함께 특별하고 감각적인 경험을 선사합니다. 레쌍스 풍다멘탈의 포물리는 강력한 안티에이징 작용을 하는 고농축 활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르 바움의 부드러운 텍스처는 피부를 매끄럽게 가꾸며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두 가지 제품으로 활력이 되살아나 탄력 있고 건강하게 빛나는 피부를 경험해보세요.

*샤넬이 특별히 개발한 과학적인 바닐라 플라니폴리아의 폴리프렉서닝 과정을 통해 40배 더 농축된 활성 성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CHANEL



SEAMASTER 300

HYUN BIN'S CHOICE

액션, 드라마, 스릴러, 코미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독보적인 매력과 수많은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인 배우 현빈은 대체 불가한 연기 스펙트럼을 선보였습니다. 경력 전반에 걸쳐 백상 예술 대상 5개 부문 후보에 올랐으며, 제47회 백상예술대상 TV대상 등 다양한 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스타일뿐만 아니라 뛰어난 재능까지 지닌 배우 현빈은 오메가의 글로벌 앰버서더입니다.



신세계 본점 강남점 타임스퀘어점 대구점 롯데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인천터미널점 현대 목동점 더현대서울점 무역센터점 판교점 대구점 갤러리아 광고점



18



20



매년 다이아몬드 브리즈를 선보이며 미법처럼 펼쳐지는 경이로운 가을의 자연을 기념하는 반클리프 아펠. 올해는 로터스 컬렉션에서 새로운 다이아몬드 세팅 작품을 출시했다. 비트윈 핑거 링, 펜던트, 이어링으로 눈부신 앙상블을 완성했고, 꽃에 담긴 순수함을 3개 또는 4개의 부케로 새롭게 해석했다. 문의 1669-1906



24

- 18 **THADDAEUS ROPAC IN SEOUL** 지난 10월 초, 서울 한남동 포트빌 건물 2층에는 유럽의 명문 화랑으로 꼽히는 타데우스 로팍(Thaddaeus Ropac) 서울이 문을 열었다. 독일 신표현주의 거장인 게오르크 바젤리츠(Georg Baselitz)를 내세운 개관전을 앞두고 서울을 찾은 갤러리 실업자이자 대표 타데우스 로팍을 만났다.
- 20 **NOW OR NEVER** 아트 페어에서 마음에 드는 그림 한 점 사는 것도, 우아한 미술관에서 감상의 눈을 빼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눈부시기도, 쓸쓸하기도 한 해변을 거닐며 공공 미술의 파도에 몸을 맡겨보는 건 어떨까? 부산 기장의 일광해수욕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2021바다미술제는 미술이 미술관을 벗어나 대중의 일상이 전개되는 '샐터'에서 즐거운 영감과 목직인 울림을 선사하는 흐릿한 사레가 아닐까 싶다.
- 21 **ETERNAL TIME** 하이 컴플리케이션 워치의 기준, 퍼펙추얼 캘린더.
- 22 **BIG FACE RUSH** 생동감 넘치는 품격과 개성, 대담하고 우아한 취향을 드러내는 여성용 빅 페이스 워치.
- 23 **DIAMONDS OF THE SEASON** 무한한 욕망과 영감을 주는 고귀하고 진귀한 다이아몬드에 대한 찬사.
- 24 **DARING COUPLE** 가을과 겨울 사이, 스산함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11월의 시크한 카탈로그.
- 32 **BLESS BODY** 풍부한 향과 리치한 텍스처로 온몸을 감싸는 하이엔드 보디 크림.
- 33 **MY HAPPY HOLIDAY!** 낭만과 설렘을 안겨줄 특별한 선물 박스. 샤넬 홀리데이 컬렉션, N5 캘린더.
- 34 **HIP & CHIC** 광범한 룩에 시크함을 더해줄 가을, 겨울 부츠 선택권.
- 35 **NEW GENERATION**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빠른 변화의 흐름을 캐치해 새로운 시도와 혁신으로 컬렉션을 내놓은 MCM. 그 DNA를 그대로 반영한 백 & 슈즈.
- 36 **WINTER FEELING** 자유롭고 여유로운 에티튜드가 강조되는 요즘. 멋과 실용성을 모두 아우르는 네 가지 소재.
- 37 **CREATIVE INNOVATION** 클래식한 디자인과 혁신적인 기술력의 결합으로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새로운 오메가 스피드마스터가 탄생했다.
- 38 **ALL IN ONE, HOLE IN ONE** 골퍼라면 누구나 흥미로워할 아이템으로 가득 채운 코브라 루마 하우스가 오픈했다. 골프 클럽부터 의류, 골프화, 액세서리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골프 관련 용품을 소개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며, 맞춤 컨설팅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 40 **WHAT'S ON MY DESK** 듣고, 보고, 기록하고, 탐구하는 일에 대한 모든 것. 영감이 생기는 책상 위 '잡동사니' 예찬.
- 41 **MODERN TABLE** 가을 식탁에 유쾌함을 불어넣는 플레이트 셀렉션 4.
- 42 **EDITOR'S PICK** 환절기, 건강하고 탄력 넘치는 피부를 위해 (스타일 조선일보)가 엄선한 이달의 뷰티템.



14

Style 조선일보

Issue.229 November 2021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장희은 rarara@chosun.com 에디터 | 성경민 sjm@chosun.com
 이주이 juyi.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정희 l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재무 | 권신비 분해·제판 | 라온
 인쇄 | 타라타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사빙고로 413 현대 하이메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일외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역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DIOR
HIGH JEWELLERY

Necklace, white gold, one 8.17 carats sapphire (Madagascar), sapphires, emeralds, tourmalines, tsavorite garnets and diamonds

문의. 02 3480 0104



FULL VOLUME

대담한 실루엣으로 조립하는 강렬하고 명쾌한 메시지. (왼쪽부터) 화이트 골드로 구현한 뾰족한 스타드와 둥근 피코 장식의 대담적인 크로아시안을 고는 매혹적인 클래쉬드 카르피에 링 3백1만원, 핑크 골드와 다이아몬드가 아우러져 선인장의 매혹적인 모습을 표현한 라투스드 카르피에 링 1천8백30만원, 강렬한 개성과 자유로움을 담은 핑크 골드 클래쉬드 카르피에 링 9백20만원. 모두 카르피에, 문의 1566-7277 에디터 이지유 포토그래퍼 박재홍 아티스틱트 배사현

매혹의 순간



반클리프 아펠은 수십 년 동안 춤의 세계에서 무한한 영감을 얻었다. 특히 고전 예술인 발레는 루이 아펠이 가장 사랑한 장르다. 이로부터 우아한 자태와 아름다운 의상 등 발레의 모든 것에서 영감을 받아 주얼리를 제작했다. 그리고 이에 그치지 않고 반클리프 아펠만의 특별한 워치메이킹 기술과 수준 높은 공예 기술, 그리고 주얼리 전문 기술을 결합해 레이다 아펠 발레리나 뮤지컬 워치를 탄생시켰다. 최초로 음악과 모션을 결합해 생생한 시간과 소리에 생동력을 부여한 타임피스로, 고도의 기술력은 물론 화려한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과 다이얼에 묘사된 발레리나들의 모습까지, 경이로운 면모가 특징이다. 워치가 작동하면서 음악이 나오고 발레리나들이 커튼 사이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니, 주얼리와 워치를 넘어 아트 피스라 불리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 가격 미정. 문의 1668-1906

TIME, A HERMÈS OBJEC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아들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INSIGHT

우아함의 여정

매종의 주얼리와 워치메이킹의 정교한 기술을 적용해 선보이는 두블르 세 체인 백, 부드러운 송아지가죽에 감각적인 컬러를 입히고, 섬세한 체인 장식과 더블 C 로고를 활용해 정체성을 이어간다. 정제된 실루엣에서 풍기는 우아한 분위기는 카르피에의 주얼리 & 워치와 함께 매칭했을 때 더욱 빛을 발한다. 스물과 미니, 두 가지 사이즈가 컬렉션을 이끌며, 스물에서는 블랙과 체리 레드, 미니 사이즈에서는 파우더 핑크, 카피 블루, 민트 컬러 등 세 가지 색상을 추가 구성했다. 문의 1566-7277



SECRET BEAUTY

샤이즈부터 모양, 쓰윅까지 귀엽고 독특한 뷰티템 3. 사벨 뷰티 블루드 사벨 올-오버 스프레이 휴대용 스프레이 남성 향수로 매력적인 진황이 톤이 되는 아로마틱 우디 향, 150ml 10만3천원, 문의 080-332-2700 데코르테 캄포트 데이 미스트 밸런스 모이스처 조영환같이 손에 쏙 들어오는 로션 미스트로 가벼운 미네랄이 베른 수분 충전물 도우며, 허벌 그린 플로럴 향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60ml 3만6천원, 문의 080-568-3111 이슬 허벌 데오도란트 블-온 액셀 같은 사이즈의 붉은 타입으로 와치비 추출물이 약취를 없애고 은은한 향을 남긴다. 50ml 3만9천원, 문의 02-515-0812 포토그래퍼 최인영 에디터 상영진 아티스틱트 배사현



HERMÈS H08 THE TEXTURE OF TIME

EXHIBITION



혹여 올기를 부산에 들었어 있다면, 출수 해마다 찾아오는 부산의 2021비디미술제 도 그렇거나와 비슷한 시기에 부산시립미술관에서 개최한 대규모 회고전을 주목해달라고 강조하고 싶다. 아니, 미술 애호가라면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겠다. 동시대 미술계에서 큰 자취를 남긴 프랑수아 출신의 거장 크리스티앙 볼탕스키(Christian Boltanski)의 첫 회고전을 챙겨 보는 길에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를 연상시키는 가장 일명해수욕장에서 예술 산책을 즐기는 여유를 누리는 식으로 말이다. 부산시립미술관이 자부하는 콘텐츠로 자리매김한 이유와 그 친구들 세 번째 시리즈인 《크리스티앙 볼탕스키: 4.4전은 마치 작가의 예기치 못한 별세를 알기라도 한 듯 제목에 4.4가 들어 있다. 작가가 태어난 해(1944)이기도 하고, 인생의 4막 4장쯤 되는 시기를 뜻하기도 하는데, 한국에서 숫자 4가 재앙을 새와 발음이 같아 죽음을 상징하는 숫자로 인식한다는 점을 볼탕스키 역시 흥미로워했다고. 공간 디자인 등 작가가 어려움 준비 과정에 참여해 초·작부터 최근작까지 43점의 작품으로 꾸민 이 전시는 그가 지난 7월 14일 타계하면서 거장의 첫 회고전이 되어버렸다. 그가 직접 디자인한 출발(Départ), 도착(Arrivée), 그 후(Après)라는 텍스트로 된 작품들이 전시장(본관 3층과 이원관 1층)을 수놓은 모습을 보면 절로 삼파죽음의 여정을 생각하게 된다. 오는 3월 27일까지.



Photo: Etnos



바카라 블랙 크리스탈
베어브릭(BE@RBRICK)
오브제 65만원 **바카라**.



루이 비통 오브제 노트드
클릭션 코우-에지스의
클릭션과 조형 기적 아점
루이 비통.



펜 홀더, 마우스 패드, 래터 스탠드,
데스크 패드, 작은 박스로 구성된
토디 가족 데스크 세트 1백18만원대
라비티 1969 by 매지스패션.



구부러진 금속 튜브 다리가 상징적인 **빌스 스웨그**
레그 데스크 4백72만원 **하먼 윌러 by 스페이스로직**.

에이더리 아줌이



편안한 착석감과 부드러운 매력이 드물지
않아, 이젠 그제야 가려 마땅 **프루트앤베니**.

3단 형식으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보비 트롤리 35
백만원 그린 70만원대 **비 라인 by EQL**.



칼 아우빅크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재해석한 뉴
에디션. 베어-리 아 매가진 락
4백55만원 **벨루티**.



플라워링 포터블 램프 VPO 패밀 1백28만원
베르나 멘들 by 아레나.

음성 명령 기능(Siri)과 블루투스 5.0 버전을 적용한 베오시운드
블린스 내추럴 오코 2백65만원 **방앤올룹슨**.



BANG & OLUFSEN



비와 주방, 거실에서
수납과 디스플레이
용으로 활용하기 좋은
MARS 콘솔 트롤리
4백74만원 **테타 by
에이퍼니스**.



수송이
가죽으로
제작한 포터블
스피커
가격 미정
에르메스.

바카라 02-3448-3778 루이 비통 02-3432-1854 벨루티 02-547-1895
스페이스로직 02-543-0164 매지스패션 0030-8321-0410
아노메사 070-7423-6738 프리츠한센 02-6959-9943 EQL 1661-8858
방앤올룹슨 02-518-1380 에이퍼니스 02-3461-0172 에르메스 02-542-6622



john varvatos
XX INDIGO
the new fragrance for men

수업문의: (주)이노메사 | www.cso.kr | 문의: 080-363-3454

GIVE THE GIFT OF WONDER

스타레오스그래피
기법으로 제작한
올베르토 & 페르난도
캄파나 형제의 코론 체어
가격 미정 루이 비통.

유기적인 형태의 부드럽게
흐르는 라인이 특징. 부드러운
패브릭으로 보디를 감싼 스완™
체어 가격 미정 프리츠한센.

DA 베르데이스-스카렐라
장사 장제안 장문진
체어 가격 미정 루이 비통 by
에르메스.

Living Selection

새로운 아이디어와 자극이 필요할 때, 독보적인 1인 체어 컬렉션.

서울 도심 곳곳에서
미주할 수 있는 이동식
바런케이드에서 영감을
얻은 라운지 체어 가격
미정 티엘 스튜디오.

재스퍼 모리슨과 협업해
탄생시킨 에쿠리브르
데르메스 체어 가격 미정
에르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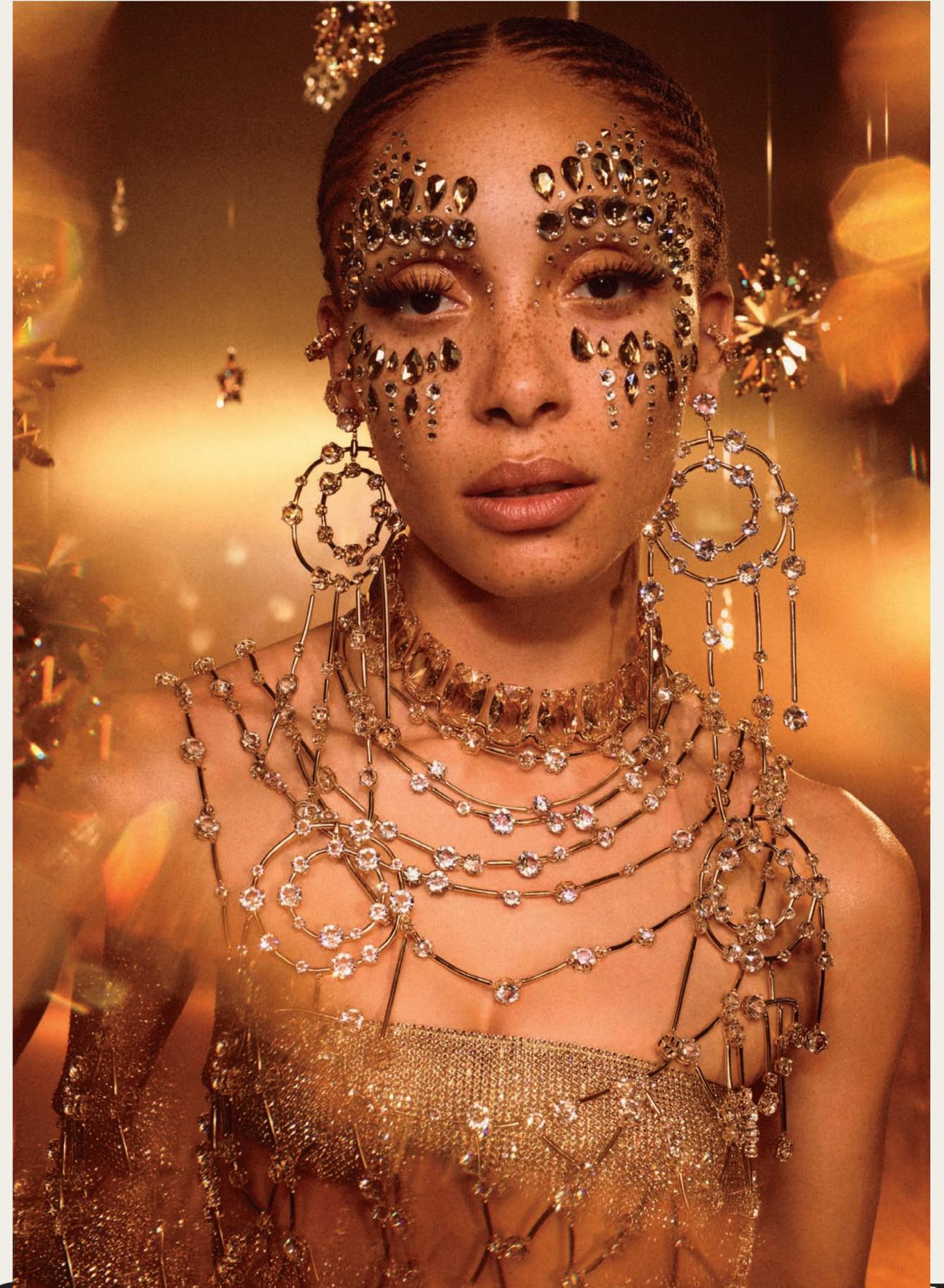
유리잔, 책 등을 둘 수 있도록 디자인한 실용적인 폭 넓은
필컬리가 특징. 오크 나무와 스웨덴산 고급 천연 가죽을
조합해 견고한 디자인을 구현했다. 더 스페니쉬 체어
6백34만원 프레데리시아 by 이노베사.

상징적인 배너가
레더와 파타나를
장목한 클래식 체어
가격 미정 벨루티.

에르메스

미술링 맨으로 알려진 카라터 비엔눔을
재해석한 앙투어 1천1백99만원
클레시론 by 스페이스로직.

루이 비통 02-3432-1854 에이퍼픽스 070-
4656-0175 프리츠한센 02-6959-9943
티엘 스튜디오 www.tiel.ch, info@tiel.ch
이노베사 070-7423-6738 에르메스
02-542-6622 벨루티 02-547-1895
스페이스로직 02-543-0164



SWAROVSKI

interview with_ 타데우스 로팍 대표

Thaddaeus Ropac in Seoul

지난 10월 초, 서울 한남동 포트힐 건물 2층에는 유럽의 명문 화랑으로 꼽히는 타데우스 로팍(Thaddaeus Ropac) 서울이 문을 열었다. 이 갤러리의 첫 아시아 진출지, 메이저 갤러리들의 몸집 불리기와 국제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서울이 아시아 지역의 문화 허브로서 점차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홍콩이나 상하이를 제치고 먼저 낙점되다니 살짝 놀랄기도 했다. 독일 신표현주의 거장인 게오르크 바젤리츠(Georg Baselitz)를 내세운 개관전을 앞두고 서울을 찾은 갤러리 설립자이자 대표 타데우스 로팍을 만나봤다. 왜 서울인지보다는 그의 정교로운 '예술가 스펙트럼'이 못내 궁금해서였다.



요즘 아트 열풍이 심심찮게 불고 있다지만, 사실 갤러리나 갤러리스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엄청난 건 아니다. 고가의 미술 작품을 소비하는 소수의 고객 위주로 돌아가고,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촘촘히 얽힌 개인적 관계망이 중요한 비즈니스인자라 상업 화랑의 세계는 '그들만의 리그' 같은 이미지가 있다. 게다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아트 페어 등의 주요 판로를 둔 갤러리들은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뿔을 벌리지 않는 편이다. 작품 한 점에 수십, 수백억원짜리를 다루고 미술관 수준의 공간을 꾸리는 현대미술계의 거대한 존재 가고시안(Gagosian)이나 하우스 앤드 워스(Hauser & Wirth) 같은 갤러리로 할리우드의 메이저 스튜디오처럼, 혹은 명품업체 파워 브랜드처럼 대중에게 친숙한 이름은 아니다. 40년 가까운 업력에 70명가량의 다국적 아티스트를 거느린 타데우스 로팍(Thaddaeus Ropac) 역시 국내외 주요 아트 페

어를 즐겨 찾는 이들이 아니라면 생소한 이름일 것이다. 필자에게는 경쟁한 현대미술가들을 소속 작가로 둔 명성 높은 갤러리지만 유럽 혈통의 점잖고 우아한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었던 것 같다. 국제 무대에서 호평받는 이블(Lee Bull) 같은 한국 작가외도 일하길래 눈길이 좀 더 간 정도였지만, 워낙 앤터니 고퍼, 알렉스 키즈 등 언론을 있는 거장들이 작가 목록을 차지해서 그런지 그다지 진취적인 인상을 품게 되는 대상은 아니었다. 그러다가 장-미셸 바스키아의 다큐멘타리를 본 것을 계기로 우연한 관심이 생겼다. '요절한 천재', 자유와 저항 정신의 아이콘' 같은 수식어가 달린 바스키아의 생애 마지막 갤러리 전시를 진행했던 인물이 바로 타데우스 로팍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바스키아는 그의 이름을 딴 라이선스 브랜드나 컬래버레이션 상품이 나올 정도로 영웅 대접을 받지만 당시만 해도 유럽에서 호평받지 못했다.



요절한 천재이자 동갑내기 작가인 바스키아와의 만남
"저는 바스키아와 나이가 똑같아요. 둘 다 1960년생이죠. 저는 바스키아 전시를 네 차례 했는데, 그의 생전에만 세 번을 했죠." 다큐멘타리나 과거 사진 자료를 봐도 알 수 있듯 그들은 당시 팔팔한 20대였다. 바스키아는 뉴욕에서 그래픽 아티스트로 유명세를 누리긴 했지만 주류 미술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편이었다. "유럽에서는 더 인정을 받지 못했고, 소수의 추종자들이 있을 뿐이었죠." 동갑내기 작가인 갤러리스트는 1988년 잘츠부르크에서 전시를 열었는데, 이것이 바스키아의 생애 마지막 갤러리 전시가 됐다. "바스키아는 당시 유럽에 머무르다가 파리를 거쳐 뉴욕으로 돌아갔는데, 그해 여름에 세상을 떠나버렸죠. 우리 전시는 그가 사망했을 당시에도 진행 중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타데우스 로팍 대표는 바스키아에 얽힌 기억만큼은 얼마 안 된 일인 양 꽤 뚜렷하게 남아 있는 듯했다. 그도 그럴 것이, 워낙 급작스럽게 세상을 뜨기도 했고 훗날 유수 경매에서 뉴욕의 파카소리는 별칭에 걸맞게 1천억원대가 넘는 가격에 작품이 거래되는 '영원한 전설'로 남게 된 인물이기도 하지 않은가(로팍 대표는 당시 잘 팔리지 않는 바스키아 작품을 은행 대출까지 받아 자신이 거했다고 한다).



1



6



8

물론 바스키아와 친한 갤러리스트나 미술계 인사는 한두 명이 아니다. 그런데 경력도 많지 않은 20대의 패기 넘치는 오스트리아의 젊은 갤러리스트는 어떻게 당시 '약동 예술가'로 통했던 바스키아와 대서양을 거치는 인연을 맺게 된 것일까? 여기에는 더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있다. 바로 백남준의 예술적 동지이기도 했던 현대미술계의 거목 요제프 보이스(Joseph Beuys)가 등장한다. 로팍 대표는 청년 시절 스스로 아티스트가 되기를 꿈꾸면서 잠시 업계에 발을 담가 경험을 쌓아보기로 했다. 경제학을 공부하기를 바랐던 부친을 설득해 유예 기간을 얻어낸 그는 당대 미술계의 구루인 요제프 보이스를 찾아가 일자리를 달라고 부탁했다. 원래 비엔나에서 그가 강연을 듣고 편지도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가 아예 뉘른베르크로 가서 그를 만났다고 한다. 그리고 호기로운 청년의 패기를 보였던 그는 '인턴'으로 보이스를 돕게 된다. 1981년이었던.

요제프 보이스가 건넨 낱긴 한장이 만든 인연,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딴 갤러리

"당시 요제프 보이스는 그의 커리어에서 중요했던 <시대정신(Zeitgeist)> 전과 카셀 도쿠멘타(5년마다 독일 카셀에서 치러지는 미술계의 가장 권위 있는 행사) 출품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굉장한 경험이었죠. 보이스 같은 위대한 예술가가 어떤 사고를 하고 작업하는지 지켜보고 배울 수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보이스는 1982년 카셀에서 열린 도쿠멘타 7에서 그 유명한 '7천 개의 현무암 기둥과 나무 삼기



9



7

1 아시아 첫 진출지로 서울을 택한 오스트리아 출신 갤러리스트 타데우스 로팍(Thaddaeus Ropac) 대표, 서울 개관전 작가인 게오르크 바젤리츠(Georg Baselitz) 작품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 도널드 자드, 요제프 보이스, 미르셀 뒤샹, 로버트 라우센버그, 장-미셸 바스키아, 로버트 메이플소프 등 미술사에 자유를 새긴 전설의 작가들뿐 아니라 동시대의 출중한 작가들과 다양한 인연을 지니고 있다. Photo by Marco Reibler 2 35년째 파브니즘과 우정을 이어가고 있는 타데우스 로팍 대표와 독일 작가 게오르크 바젤리츠가 2010년 파리에서 함께한 모습. Photo © Philip Hughes Bonan 3 지난해 부산의 아트 페어 아트부산(Art Busan)에 참여했을 당시 타데우스 로팍 갤러리 부스 전경. 바젤리츠를 비롯해 이블(Lee Bull), 올리버 바이(Oliver Beer) 등의 작가 작품이 보인다. Photo by SY Ko 4 잘츠부르크의 19세기 건물 빌라 카스트(Villa Kast)에 있는 타데우스 로팍의 갤러리. Photo by Ulrich Ghezzi 5 타데우스 로팍 갤러리가 파리 팜탱(Pantin)의 20세기 주택 공장을 개조해 지은 공간. 5,000㎡ 규모로 미술관을 빌딩에 하는 대규모 전설이다. 미국 작가 제임스 로렌티스 작품이 보인다. Photo by Charles Duprat 6 지난 10월 7일부터 타데우스 로팍 서울의 개관전 작가로 (크리스나 호텐)이라는 전사를 사정한 게오르크 바젤리츠. 오는 11월 27일까지. Photo by Martin Müller 7 게오르크 바젤리츠의 (브르니 호텐) 전시 모습. © Georg Baselitz Photo by Ahn Heesang 8 최근 파리 콩피유 센터에서 개최한 바젤리츠의 대규모 회고전. Photo © Centre Pompidou, Bertrand Prévost 9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작업하는 영국 추상 조각가 겸 앤디 골드(Andy Goldsworthy). 타데우스 로팍 갤러리 작가 중 한 명이다(대개 기념품의 경우 한 갤러리에만 묶여 있는 편이다). Photo by Stephen White & Co. 10 타데우스 로팍과 인연을 지닌 또 다른 작가 안셀름 키터(Anselm Kiefer)가 작업하는 모습. 게르하르트 리하터, 게오르크 바젤리츠 등과 더불어 현대미술을 주도한 독일(독일) 출신의 새파란 작가다. 20세 때 참사했던 참혹한 전쟁의 주범이자 패전국으로 지목당해 트라우마가 엄청난 독일에서는 전후에 유달리 거장이 많지 않았다. Photo by Georges Poncet * 1, 2, 4~10 이미지 Courtesy Thaddaeus Ropac gallery | London · Paris · Salzburg · Seoul

를 시도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생태학 운동의 면모를 지녔던 이 작품은 '사회적 조각'이라는 작가의 개념도 대변하고 있다. 청년 로팍은 그야말로 '인생 경험'을 한 셈인데, 한편으로는 자신의 진로를 다시금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다고 한다. 아티스트로서의 재능은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 세계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자신과 전사를 하겠다고 보이스에게 의사를 타진하기도 했다(머뭇거렸지만 그는 결국 나중에 로팍과 전사를 했다). 보이스는 로팍의 표현대로 그야말로 '인생을 바꿔놓은' 은인이다. 이듬해인 1983년 팝아트의 심장 같은 앤디 워홀을 만나는 디딤돌 역할도 했기 때문이다. 그 연결을 가능케 한 마패는 한 장의 낱긴이었다. 요제프 보이스는 종이 낱긴에 '이 재능 있는 젊은이를 만나보게(Dear Andy, Please meet this talented young man)'라는 짧은 글귀를 써서 로팍에게 건넸다. "그 종이 낱긴은 미국으로 가는 티켓이었죠." 로팍은 미소를 지으며 회상했다. 워홀은 아마도 유럽에서 건너온 이 패기 넘치는 젊은 초짜 갤러리스트를 마냥 뿌리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어린 친구(장-미셸 바스키아)를 소개해줬을 테고 말이다. 그렇게 로팍은 워홀이 아꼈던 바스키아를 비롯해 키스 해링, 로버트 메이플소프 등 당시 미국 아트 신을 여러모로 달군 당대의 아티스트들, 그리고 저명한 미술계 인사들도 만나게 됐다. 그야말로 1980년대를 (여러 의미로) 들쭉이게 했고, 후세에 저마다의 뜻 깊은 자취를 남긴 이들과 놀며, 일하며, 연대를 다진 것이다. 그리고 같은 해 여름 잘츠부르크로 돌아와 자신의 이름을 내건 갤러리를 정식으로 열었다. 무려 38년 전 일이고, 이제 그는 60대에 접어들, 노련하지만 초심을 잃지 않으려는 갤러리스트로 아시아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작가들이 잘 팔리지 않는 갤러리를 만든 '신뢰'의 힘

갤러리스트를 우리말로 화상(畫商)이라고도 하듯, 그저 미술품을 사고파는 장사꾼으로 보는 시선도 존재한다(아차피 같은 직업이라도 다른 마인드로 일하는 차별된 얼굴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미술관 같은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경향이 강한 기관의 관점에서 놓치는 신선한 재능을 알아보고 연결해줌, 빼어난 마케팅으로(기름은 '거품'도 만들어지지만) 작가를 스타덤에 올려놓는 아트 경영의 귀재도 있다. 뛰어난 갤러리스트를 만나보면 이것이 단순히 전략이나 마케팅 차원만이 아니라 정말로 '보는 눈과 감', '촉이 있는 데다 작가와 미술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런 사령탑이자 친구라면 단순히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연'이 오래 유지될 수밖에 없다. 타데우스 로팍이라는 인물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그의 갤러리 소속 작가들이 거의 그를 떠난 일이 없다는 사실을 보면 '신뢰'도 '실력'도 인정받고 있음을 미뤄 짐작해볼 수는 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타데우스 로팍 갤러리의 서울 입성 프로젝트를 맡은 황규진 디렉터는 갤러리의 일을 작품 판매가 아니라 '플레이스먼트(placement)'로 여긴다고 설명했다. 정말로 작가의 가치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관(미술관이나 아트 센터), 그리고 컬렉터의 손에 작품이 놓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역할과 사명'에 따라 일하는 게 좋은 갤러리스트의 자세라는 얘기다. '클리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들 자신을 포함해 유난히 들뜬 작품의 미술 생태계에서 곱씹어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10

타데우스 로팍 서울의 포문을 연 80대의 독일 작가 게오르크 바젤리츠(Georg Baselitz)도 열었다. 무려 38년 전 일이고, 이제 그는 60대에 접어들, 노련하지만 초심을 잃지 않으려는 갤러리스트로 아시아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부산, 2021바다미술제

now or never

아트 페어에서 마음에 드는 그림 한 점 사는 것도, 우아한 미술관에서 감상의 눈을 빠지는 것도 나쁘지 않았지만 눈부시기도, 쓸쓸하기도 한 해변을 거닐며 공공 미술의 파도에 몸을 맡겨보는 건 어떨까? 부산 기장의 일광해수욕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2021바다미술제는 미술이 미술관 밖을 벗어나 대중의 일상이 전개되는 '삶터'에서 즐거운 영감과 목직한 울림을 선사하는 호젓한 사례가 아닐까 싶다. 이는 지역 작가를 포함한 13개국 22팀(36명)이 다문화적 배경을 지닌 20대의 감독과 진지하게 머리를 맞댄 기획 아래 현지인과 어울려져 창작을 해나간 과정이며, 그 결과물이 다 준수한 '축제'다. 상품화나 이데올로기의 도구가 아니라 문화적 감성과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사명을 지키려 애쓴 예술 체임의 현장에 가봤다.

만물이 다 그렇지만 바다라는 존재는 침묵이 많은 이미지와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아마도 복잡한 물의 삶에서 잠시 벗어난 '격'에는 한없이 낭만적이고 반짝이는 바다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끝을 모르게 깊고 칠흑같이 어두운, 그래서 때로는 불안하고 섬뜩한 바다일 수도, 고요하고 쓸쓸하고 애처롭기 짝이 없는 적막과 슬픔의 바다일 수도 있다. 이렇듯 다분히 인간 본능적인 감성도 좋지만 한 번쯤 바다를 이루는 비(非)인간의 생태계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는 어떨까? 부산 기장군의 일광 해변에서 펼쳐지고 있는 2021바다미술제의 리타카 비스와스(Ritika Biswas) 감독은 인간과 비인간을 분리된 개체로 인식하는 시점에서 벗어나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미처 깨닫지 못했던 여러 세계와 만나는 교감의 장으로서 바다에 초대한다. 지난 10월 중순 막을 올려 11월 14일까지 진행되는 <인간과 비인간: 이상블라주(Non-/Human Assemblages)>.

바다, 인간-비인간을 보듬는 연결 고리

지구촌을 2년 동안이나 정약한 코로나19와 기후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자연과의 관계 회복, 인간 공동체의 연대는 공공 미술이 선보이는 아티스트 제를 수용기에 적절한 키워드일 수 있지만, 언뜻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아티스트가하고 평온한 분위기의 일광 바닷가에 놓인 여러 설치 작품은 투박하거나 강렬한 방식으로 진지한 성찰을 호소하기보다는 주변의 아름다움을 상기시키는 대체로운 형태와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이들의 마음을 두드린다. 어떤 잔인함을 산책하는 나에 따라 다르겠지만, 필자의 산책은 영롱하게 빛나는 카타린 해변의 설치 작품에서 시작했다. 낮에 햇살을 받으면 반짝반짝 빛나는 인피나 복숭아 같기도 하고, 밤엔 우주선 같기도 한 영롱의 드롭스(2021)는 오래된 작가의 작품. 해변만이 아니라 바다, 하늘까지 유희공을 이루려는 카타린과 시랑스라는 물방울들이다. 오비베이오(OBBA)의 Lightwaves(2021)는 다색의 빛을 반사시키는 특수 필름이 바닷바람에 나부끼면 마치 빛의 바다사자로 걸어 다니는 듯한 환희를 준다. 부드러운 곡



6

선의 결이 유려한 태동(2021)은 자연으로부터 소재와 영감을 얻은 대지 미술 가리 쿠에이치의 대나무 소재 설치 작품이고, 카타린 나무 소재 설치물에 퍼포먼스 현장을 담은 사진을 프린트한 '유영하는 뿌리'(2021)도 대지인 속에서 성장해 자연물을 재료로 즐겨 활용하는 방글라데시의 지역 원주민 출신 작가 조 아데브 로이치의 작품이다. 멀리서 보면 고운 색조의 섬 같지만 가까이 갈수록 산호초와 유암현 필라지, 무릎 등 물의 일부들이 드러나는 류예준 작가의 인체 조각 '주름진 몸상의 선물'(2021), 마구리(아입 잠수부가 쓰는 장비를 통해 찬 사이보그의 모습)이 바다를 배경으로 묘한 느낌의 형상을 보여주는 한테 문명 발달로 퇴화되는 인간의 모습을 담았다는 최한진 작가의 '트랜스(2021)', 바람을 동력 삼아 움직이는 조형된 조각의 카네틱 아트 작품 '생명의 반역' 등은 자타의 방식으로 기묘한 미를 지어낸다. 삼평행이 새겨진 타조알처럼 생긴 자기 작품은 언뜻 생동감이 가장 눈길을 끌 수 있는 데 강경화 작가의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 영감의 바다로부터 온 새로운 버려진 자기로 지역 장인의 도움을 받아 빛아낸 '협업의 신물'이다.

예술적 공간으로 거듭난 일광해수욕장 일대

해가 지더라도 발길을 돌려서는 안 된다. 일몰 이후에도 즐길 수 있는 작품들이 있으니 시간을 넉넉히 잡고 이 동네 맛으로라도 여유해두기를 추천한다. 해변가에서 바다 생물들의 춤을 보여주는 듯한 로하니 드래셔의 영상 작품 '상해 온실(2021)'이러니, 낚시줄과 구리선으로 엮어 다리 사이로 리듬을 타는 인제국의 설치 작품 '세묘유워(2021)', 거대한 쓰개질로 수놓은 작품이 다리 위에서 산비둘기 빛나는 최한진인 아가 텀츠의 피막(2021), 공원에서 주민들의 머리카락으로 뒤덮인 나무와 조형물로 으스스한 느낌을 주는 이진선의 The DNA Park(2021), 그리고 마을의 아파트 파사드를 장식하는 같은나의 영상 작품 '오션 마신(2021)', 충분히 대중적이면서 생각할 거리도 던져주는 바닷가의 예술 산책은 길지 않아 고도지 않고, 호젓한 일광의 이름 다음을 들뜬 누릴 수 있어 즐겁다. 바다미술제 사상 첫 외국인, 여성, 최연소라는 수식어를 단 리타카 비스와스 감독은 다중 집합이 어려운 시기에 규모가 큰 장소보다 아담하고 상업적이지 않은 '무대'를 원했는데, 일광해수욕장이 안성맞춤으로 여겨졌다고. 한동안 '불박이처럼' 이 마을에서 꽤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비스와스 감독은 "자나가면 절 다 알아볼 정도로 배회했다"고 말하며 일부 작가들은 주민과 대화를 나누면서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사회 참여적 인 방식을 취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지역 미술계에서 준비 과정부터 현지 인들과 소통할 점은 주목할 만한데, 이는 격년으로 열리는 바다미술제의 이전 장사(순도, 대포 등)와 달리 일광은 주민들이 대부분 바다 가까이 거주하는, 주인 있는 해수욕장이라 가능했다는 해석이 뒤따른다. 벌써 을씨년스러운 느낌이 묻어는 일광의 예술 산책은 섬세한 생태계이자 누군가의 삶터인 바닷가에서 '공생과 소통, 가리' 같은 가치를 생각해보게 해준다. 그래서인지 7건에 오래된 책을 곁잡이해줌 하기도 했다. 미국 여성 최초로 비행 연하를 취득한 시인이자 수필가로 평생에 걸쳐 바다를 사랑했던 앤 모로 린드버그의 <바다의 선물>. 좋은 글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여전히 큰 울림을 준다. '바다는 욕심 없고 침울성 없는 이에게 자신의 보물을 내 주지 않는다(중략). 마음을 비우고 아무런 바람 없이 누워 바다로부터의 선물을 그쳐 가더라도 한다.'" 글 **고성현**

2



3



4



1 바닷물을 무대로 펼쳐지는 부산의 바다미술제는 1987년 88서울올림픽의 부대 행사로 출발해 2011년부터는 독자적 브랜드로 출사 해마다 열린다. 지난 10월 16일 막을 올린 2021바다미술제는 처음으로 기장군의 아담하고 고요한 일광해수욕장 일대에서 선보였다는 11월 14일까지, 새로운 해변을 수놓은 여러 작품 중 하인 오비베이오(OBBA)의 설치 작품 Lightwaves(2021), 2 대만 작가 리쿠에이치의 대나무 소재 설치 작품 태동(2021), 3 문명 속에서 소외된 존재성에 주목하는 부산 출신 강경화 작가의 자연의 자맥을 정연과 협업해 버려진 조각들을 재조합해 만든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2021), 4 카타린 나무 소재 설치물에 퍼포먼스 현장을 담은 사진을 프린트한 '유영하는 뿌리'(2021), 자연물을 재료로 즐겨 활용하는 방글라데시의 지역 원주민 출신 작가 조 아데브 로이치의 작품이다. 5 바람을 동력 삼아 움직이는 조형된 조각의 카네틱 아트 작품 '생명의 반역'(2021), 해리, 문방 등을 담은 이 작품은 재현용 소재로 만들었다. 6 부산 작가 류예준의 주름진 몸상의 선물(2021). 멀리서 보면 고운 색조의 섬 같지만 가까이 갈수록 산호초와 유암현 필라지, 무릎 등 물의 일부들이 드러나는 인체 조각이다. * 1, 4, 5 Photo by SY Ko, 2, 3, 6 이미지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5



eternal time

하이 컴플리케이션 위치의 기준, 퍼페추얼 캘린더,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카르띠에 신스토드 카르띠에 크로노그래프** 오트메틱 와인딩 크로노그래프 메카니컬 무브먼트인 1904 CH MC 칼리버로 구동한다. 신스토드의 아티스티를 반영하는 직각 케이스에 황색 블랙 스톱워치를 세팅한 필라지 크라운을 매혹했다. 새틴 브러시드 상체 다이얼과 검 오랑 블랙 스틸 루미네스츠 핸즈로 양생해 모던하고 스포한 매력을 더한다. 스트랩은 러버 소재로 스포티한 느낌을 준다. 1천9백30만원, 문의 1566-7277

바세린 콘스탄틴 울트라-씬 퍼페추얼 캘린더 울트라-씬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인 칼리버 1120 QP로 구동한다. 시, 분, 6시 방향의 문패이지, 9시 방향의 요일 표시 서브 다이얼, 3시 방향의 날짜 표시 카운터, 12시 방향의 윤년 표시 포함 된 48개월 표시 카운터로 세련된 퍼페추얼 캘린더 기능을 갖췄다. 2100년 3월 1일까지 단 한 번의 조정 없이 불규칙한 날짜 변화를 정확하게 표시하며, 딥 블루 다이얼에 상트베에-펠렌 장상한 문패이지 디스클레이가 고급스러움을 더한다. 1억1천1백만원, 문의 02-3446-0088

IWC 빅 피아펫 워치 퍼페추얼 캘린더 46.2mm 직 케이스가 캘린더 메카니즘의 다양한 디스클레이를 위한 넉넉한 공간을 제공하며 기록성을 높인다. 매달 문패이지는 날짜 수와 윤년을 자동으로 개월해 2100년까지 수동 조정할 필요 없을 뿐 아니라 약 80개의 개별 부품으로 설계된 IWC 자체 제작 52615 칼리버의 캘린더 모듈이 이면에 날짜가 단일 전환도도록 구동한다. 큰 숫자와 인덱스로 한눈에 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블루 다이얼과 매혹해 남성적인 감성을 담았다. 3천9백30만원, 문의 1670-7363

피아제 구버너 리운드와 티원의 섬세한 조화가 돋보이는 블랙 타이 칼렉션의 타임피스, 세련되고 유려하며 조화로운 디자인을 갖춘 동시에 퍼페추얼 캘린더 기능으로 기계적으로도 완벽한 기술력을 반영했다. 지름 43mm의 18K 핑크 골드 케이스와 기묘하게 마감된 다이얼은 우아함을 부각하며 레트로그래이드 날짜·요일, 주야 인디케이터, 세컨드 타임존까지 세 가지 창으로 섬세하게 구성되어 모던하고 세련된 비주얼을 자랑한다. 7천만원대, 문의 02-3479-1802

블랑팡 발랑데 퍼페추얼 캘린더 클래식한 디자인에 하이 컴플리케이션 퍼페추얼 캘린더를 결합한 워치로, 극도의 우아함과 하이엔드 기술력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특히 블랑팡 워치의 시그니처 다이얼 레이아웃을 고수하면서도 6시 방향의 문패이지를 비롯해 3·9·12시 방향의 각각 날짜, 요일, 월의 캘린더 창을 확인할 수 있는 스틸 다이얼을 적절하게 배치해 특별함을 더했다. 케이스 뒤에 자리한 작은 래치는 캘린더와 문패이지를 조정할 수 있는 특허 받은 장치로 육안 조작이 가능하며 매끈한 실루엣을 자랑한다. 7천8백만원대, 문의 02-3213-2261

스워드 L.U.C 루나 원 세련된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와 화이트 다이얼의 조화가 돋보이는 타임피스. 43mm 케이스에 12시 방향에는 날짜창, 3시 방향에 4년 주기 윤년과 월 표시창, 6시 방향 문패이지 디스클레이와 60분 카운터, 9시 방향 데이·나이트와 요일일까지 담아 깊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스트랩은 블랙으로 선택해 클래식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마무리했으며 셔츠나 정장에도 잘 어울리는 비주얼이 특징이다. 9천3백74만원, 문의 02-6906-3390

브라운링 스틸 크로노멧 44 4인 캘린더 지름 44mm의 대담한 케이스와 세련된 미감을 더한 스틸 소재로, 회전 가능한 배럴이 견고하고 강한 느낌을 선사한다. 윤년 모듈이올 매나 1천9백41만원에 한 번 날짜를 조정해야 하는 세미 퍼페추얼 캘린더 메카니즘을 갖추었으며 요일, 날짜, 월 및 문패이지까지 표시한다. 브라운링이 클래식함을 정제한 투톤 블루 브라운링은 스틸과 18K 레드 골드 소재로 이루어져 스포티한 매력과 낭만미를 동시에 표현한다. 1천9백67만원, 문의 032-654-5454 이미지 **상경민**

big face rush

생동감 넘치는 품격과 개성, 대담하고 우아한 취향을 드러내는 여성용 빅 페이스 워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쇼파드 임페리얼 워치** 지름 40mm의 로즈 골드 케이스에 라그와 베젤에 3,977캐럿에 달하는 다이아몬드 53개와 자수정을 세팅해 화려한 멋을 더했다. 섀시가 다이얼 위에 로만 골드 인덱스를 올리고 인덱스에는 자개를 장식해 낭만적인 분위기를 극대화했다. 블랙 알라기터 가죽 스트랩으로 기품 있게 마무리했다. 7천1백48만원. 문의 02-6905-3390

블링팅 우먼 크로노그래프 그랜드 데이트 정교한 기계식 메카니즘을 상세한 감성으로 담아낸 피스. 컴플리케이션 셀프 와인딩 메뉴백처 칼리버 26F8G에서 동력을 얻는다. 지름 38.6mm 자개 다이얼 중앙에 일렁이는 물결처럼 크고 작은 17개 다이아몬드를 장식해 구역을 나누고 12시 방향에 서브 다이얼을 장식했으며, 3시와 6시 방향에 크로노그래프 창을, 6시 방향에는 라지 데이트 창을 올렸다. 투명한 사파이어 케이스 백으로 부브먼트의 정교한 움직임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으며, 화이트 타조가죽 스트랩으로 우아한 스타일을 완성한다. 5천1백만원대. 문의 02-3479-1833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38 코-엑시얼 크로노미터 크로노그래프 38MM 크로노그래프 워치로 사태를 아우르는 클래식한 면모를 지녔다. 가장자리의 브라운 알루미늄 링은 타카타의 기능을 나타낸다. 52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지원하는 오메가 코-엑시얼 칼리버 3330으로 구동하며, 시가차늘과 크로노그래프 세컨즈 핸즈에 화이트 슈퍼-루미노버를 입혀 어둠 속에서도 명확한 가독성을 발휘한다. 8백만원대. 문의 02-310-1270

로저드비 엑스칼리버 36 에센셜 지름 36mm 클래식한 라운드 케이스와 슬베 세팅 스텐레스스틸 다이얼 위 강렬한 로만 인덱스의 인상력이 도드라지고 강렬한 개성을 내뿜는다. 48시간의 파워 리저브와 5배(car) 방수 기능을 지원하는 오토매틱 칼리버 RD630을 장착했다. 핑크 골드 케이스에 슬레이트 그레이 알라기터 스트랩을 매치해 특유의 우아한 분위기를 이끈다. 4천70만원. 문의 02-3479-1403

브라운링 크로노멧 오토매틱 36 우아함과 스포티한 면모를 동시에 갖춘 아이템으로 콰이 브라운링과 코피 레커다 이걸의 조화가 신기한 매력을 발산한다. 6시 방향에 날짜창이 자리잡고, 슈퍼-루미노버를 입힌 아랍 알자지르 인덱스를 올렸다. 크로노미터 공식 인증받은 브라운링 칼리버 10 무브먼트로 구동하며, 42시간의 파워 리저브와 수심 100m 방수 기능을 지녔다. 1천8백만원대. 문의 02-3448-1200

IWC 포르투갈어 오토매틱 37 베젤의 다이아몬드 장식은 화려한 분위기를 자아내지만, 매초 특유의 강렬하고 장대한 멋으로 미학적 완성도를 높였다. 지름 37mm 섀시가 장식 이 매혹적인 반사광을 만들어내고, 케이스 표면의 매끈한 광택이 특별한 기쁨을 선사한다. 3시 방향에 날짜창을 장식해 실용적인 면모도 놓치지 않았다. 상세한 외관과 매초되는 강철의 기계식 오토매틱 무브먼트 35111 칼리버로 구동한다. 레드 골드와 조화를 이루는 스텐레스스틸 리얼링 칼리 열리 게터 레더 스트랩을 매치해 선보인다. 2천2백만원. 문의 1670-7363 에디터 이주이

diamonds of the season

무한한 욕망과 영감을 주는 고귀하고 진귀한 다이아몬드에 대한 찬사.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피아제 포제션 콘스탄트 링** 회전 밴드 27개를 갖춘 다이아몬드의 영롱한 아름다움은 아라즐거움 감성을 선사한다. 18K 핑크골드 위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약 2,367캐럿을 패배 세팅했으며, 중앙에 화이트 세라믹 장식을 더해 깨끗하고 순수한 다이아몬드의 이미지를 부각했다. 2천만원대. 문의 02-3479-1802 **가르디에 솔라티어 1895** 링 유령을 타지 않는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4개의 문을 필레트와 와이 어 보드로 이루어진 방화대 가운데 빅 다이아몬드가 교형을 잡아주며, 영감으로 떨어지는 패배 세팅 다이아몬드 장식은 우아함을 더한다. 가격 미정. 문의 1566-7277 **타미노 리운드 & 마카즈 다이아몬드 데크리스** 다이아몬드 관목처럼 펼쳐진 타미노의 리이 주얼리 컬렉션 중 한 피스로, 출중한 다이아몬드 세팅과 다양한 기법을 통해 웅장함을 자랑한다. 플라티넘 소재에 총 9,637캐럿의 라운드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 292개와 총 19,637캐럿의 마카즈 컷 다이아몬드 877개를 세팅해 바랄할 광채를 뽐낸다. 가격 미정. 문의 02-6250-8620 **탈라피 피오레** 고대 로마의 유신과 브랜드 헤리티지 속 플라워 모티프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4개의 꽃잎을 지닌 다이아몬드 주얼리 컬렉션으로 대담한 라인과 조형적인 볼륨감이 특징이다. 이 링은 화이트 골드를 코일 모양으로 감은 뒤 그 위에 1.17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놀라운 기교와 생기 넘치는 우아함을 선사한다. 1천8백만원대. 문의 02-2066-0171 **쇼베 미 마이 러브 솔라티어 링** 브랜드 아이덴티티인 하네스의 욕망형 구조에서 영감을 받은 링. 오랜 연구 및 제작 과정의 결과로 얻은 새로운 88면 욕망형 컷 다이아몬드 3개로 완성했다. 화이트 골드에 약 1캐럿 다이아몬드가 중앙에 자리잡고, 나머지 0.23캐럿 다이아몬드가 양쪽에 배치되어 심플하면서도 독보적인 아름다움과 눈부신 빛을 발한다. 2천만원대. 문의 02-2039-3864 **쇼파드 그랜드 맥스웰링 링** 순리와 변형을 상징하는 열개 수모브가 돋보이는 링으로, 마카즈 컷 다이아몬드를 일사불란하게 정교하게 커팅해 세팅한 것이 특징이다. 총 2,889캐럿의 다이아몬드 22개로 구성되어 있다. 5천7백39만원. 문의 02-6905-3300 **부르크홀름 드림 M 맨디트 네 크리스** 전설적이고 절제적인 아이러니한 공작 기법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맨디트 자유분방하면서도 우아한 매력을 드러낸다. 컷팅 중량에는 0.32캐럿 로즈 컷 다이아몬드가 포인트로 자리잡으며, 그 주변에 깃털 기둥은 화이트 골드 소재에 총 1,027캐럿, 2백24캐럿의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패배 세팅해 극도의 상세함과 정교함을 보여준다. 2천만원대. 문의 02-772-3608 에디터 상정민

퍼코트 가격 미정 포츠 1961,
릴리 패드 자수의 비데칭 등,
블랙 컬러 팬츠 모두 가격 미정
알렉산더 맥퀸, 브라운 컬러 스웨글
장식 부츠 가격 미정 프리다.

daring couple

가을과 겨울 사이, 스산함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11월의 시크한 커플 룩.
photographed by jung ji eun



(남자) 스카이 블루 컬러 코트, 블랙 컬러
V넥 니트 톱, 베이비 컬러 보디 수트,
그린 컬러 베르나체 슈즈, 그린 컬러 삼각
포켓 장식 글러브 모두 가격 미정 프리다.
(여자) 캐럴 코트 8백만원대, 캐시미어
니트 룩 가격 미정, 베이지 컬러 스커트
3백만원대, 핑크 샌들 2백만원대 모두
렌디, 아이커프 가격 미정 사카이.



실크 패딩 코트 5백만원대,
블랙 컬러 니트 톱 1백만원대,
블랙 컬러 팬츠 80만원대
모두 **앤디**, 블랙 컬러 레더
부츠 2백50만원 **구찌**.



(남자) 그레이 더플코트, 블루 컬러 코튼
프린트 튜닉 셔츠, 블랙 컬러 롱 슬리브 코튼
자켓, 블랙 컬러 올 팬츠 모두 가격 미정,
블랙 컬러 레더 부츠 1백18만원 **버버리**.
(여자) 버건디 더플 코트 7백50만원,
패널 디테일 그랑 드 푸드르 올 테일워드
재킷 3백19만원, 베이지 컬러 샷스 부츠
2백55만원 모두 **버버리**.



(남자) 레드 컬러 체크 코트,
스트라이프 셔츠 모두 가격 미정
루이 비통. (여자) 레드 컬러 케이프,
화이트 컬러 니트 폴오버, 니트 후드
모두 가격 미정 **루이 비통.**



슬리브리스 시어링 재킷
1천2백96천5천원 **자형시.** 브라운
컬러 로고 재킷 7백10만원, 화이트
컬러 셔츠 1백61만원, 브라운 컬러
로고 스카르트 6백33만원, 브라운 컬러
로고 팬티 슈즈 6백30만원 모두 **구찌.**



레드 컬러 카디건 가격 미정
에르메스, 브라운 컬러 코트
가격 미정 구찌, 멀티컬러 프린트
셔츠 가격 미정 모스카노.



(남자) 리텍스로 마감한 레드 소재
트렌치코트 가격 미정, 플로럴 마이크로메
딴 5백32만원 모두 보태가 배너다.
(여자) 레드 컬러 시어링 소재 코트
2천7백만원, 리텍스 마감의 레드 소재
팬츠 5백92만원 모두 보태가 배너다.

헤어 김우준
메이크업 아이영
모델 김강연(GOST Agency),
배윤경(YG K+)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보태가 배너다 02-3438-7601
에르메스 02-544-7722
프라다 02-3218-5331
펜디 02-514-0652
구찌 02-3452-1921
루이 비통 02-3432-1854
알렉산더 맥퀸 02-6905-3472
자황시 02-546-2790
버버리 080-700-8800
모스카노 02-2118-6138
포츠 1961 02-6402-1831
사카이 02-541-7510





Western Boots

빈티지한 감성을 주는 웨스턴 부츠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색도 소재도 더 다채로졌지만 가장 클래식한 캐주얼 컬러에 스웨이드 소재가 가장 웨스턴 부츠다운 무드를 풍긴다. 시랑스카운 아일랜드 스카티나 빈티지하고 캐주얼한 데님 소재에 매치하면 패셔너블하면서도 동시대적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왼쪽) 스웨이드 소재의 레드 브라운 힐 부츠 가격 미정 **힐프 로렌**, 문의 02-545-8200
 (오른쪽) 전통 웨스턴 부츠 형태로 부드러운 송아지가죽에 새겨진 문양이 독특한 부츠 1백75만원대 **에트로**, 문의 02-3446-1369



Chunky Boots

부츠와 장화 사이 어디쯤에 있을 법한 투박한 실루엣의 창키 부츠는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멋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기 좋다. 그뿐 아니라 튼튼한 소재 덕에 날씨가 궂은 날에도 편하게 착용할 수 있다. 시어한 원피스나 플리츠 스카티 같은 다소 패셔너블 의상이 부담스럽다면 창키함을 더할 목작한 부츠를 매치해볼 것. 반전 있는 스타일로 좀 더 캐주얼하고 가볍게 연출 가능하다.

(위) 창키한 밑창이 특징인 장화 형태의 부츠로, 사이드의 미우미우 로고가 카치함을 더한다. 1백51만원 **미우미우**, 문의 02-3218-5331.
 (아래) 지도르 파리* 위딩을 블루 프러팅한 라퍼 소재의 레이스업 부츠 가격 미정 **디올**, 문의 02-3480-0104

New generation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빠른 변화의 흐름을 캐치해 새로운 시도와 혁신으로 새로운 컬렉션을 내놓은 MCM. 그 DNA를 그대로 반영한 백 & 슈즈,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새로운 시도와 혁신을 주저하지 않는 MCM에서 2021 F/W 컬렉션 메타버스로 또 다른 혁신을 시도한다. 온라인과 자연 및 공통체의 결합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네오하우스 콘셉트를 구현하며 메타버스를 무대로 현실과 디지털 공간을 아우르는 컬렉션을 완성한 것. 특히 최신 컬렉션에서는 구조적인 테일러링과 해체주의적 실루엣을 비롯해 과감한 그래픽과 유려한 곡선형 모티브뿐 아니라 활동적인 움직임이나 레저 생활에서 스타일과 편의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다양한 의류와 액세서리가 돋보인다. 또 MCM의 라이프 스타일 카테고리에서는 다양한 실내 라운지 웨어 및 액세서리를 선보이고 있으며, 털 모자와 털 슬리퍼 등은 실내에서만 아니라 야외 활동을 할 때도 충분히 착용 가능한 디자인이다. 즉 MCM은 오프라인 세계와 메타버스를 아울러 질과 밖, 낮과 밤, 수중음과 대담함, 격식 있는 차림과 캐주얼한 차림의 경계를 부수고 새로운 컬렉션을 통해 가상과 현실로 여행을 떠난다. 이는 실내와 야외, 휴식 활동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비주얼로 나아가는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백과 퍼 슬라이딩은 이번 컬렉션의 모토를 잘 보여주는 제품이라 할 수 있다. 레더와 퍼의 하이브리드 조합이 돋보이며 손을 자유롭게 해줄 크로스 백은 물론, 실내나 야외 등 어디에서나 돋보일 수 있는 퍼 슬라이딩까지. MCM F/W 컬렉션의 혁신적인 DNA를 품은 두 가지 아이템을 소개한다. **에디터 성정민**



Hip & Chic

평범한 룩에 시크함을 더해줄 가을, 겨울 부츠 셀렉션.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Ankle Boots

발목까지 오는 앵클부츠는 어디에나 매치하기 좋은 아이템이다. 특히 굽이 투박한 워커 형태의 부츠나 신고 벗기 편한 플시 부츠는 실용성까지 높다. 발목이 보일 듯 말 듯한 맥스커튼나 스트레오트 및 팬츠와 매치하면 깔끔한 감성을 더할 수 있다.

(위) 100% 송아지가죽에 사이드 밴딩으로 신고 벗기 편한 플시 부츠 1백20만원 **일렉스더 맥퀸**, 문의 02-6106-2226.
 (아래) 시그나처 스타치 디테일을 더한 로만 스타드 부츠 1백79만원 **빌렌티노 가리버니**, 문의 02-2015-4653



Long Boots

가을, 겨울 스타일링을 위해 꼭 하나쯤 마련해야 하는 롱부츠. 미니스커트에 매치하면 스타일 자유는 물론 보온성까지 높이며, 센스 있게 나식스나 스타킹을 더하면 드레스업 스타일까지 연출할 수 있다. 스카티 전에 매치해도 글하고 예지 있는 룩을 완성해준다. 특히 최근에는 송아지에서 영감을 받은 부츠 스타일이 대세이니 눈여겨볼 것.

(위) 진한 브라운 컬러로 시크함을 더하는 밭수 차림 가죽 소재의 송마 부츠 2백50만원대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아래) 송아지에서 영감을 받은 홀스빗 해네스 디테일의 롱 가죽 부츠 2백599만원 **구찌**, 문의 02-3452-1921 **에디터 성정민**



에르메스 웹사이트

● sponsored by MCM

(위부터) 부드러운 송아지의 구조적인 새틴과를 더한 제품으로 상단에는 동물 보호를 위한 폴리에스터 소재 에코 퍼를 사용해 화려하게 장식했으며 건축적인 MCM 로고를 슬라이드 전체에 대해 특별한 느낌을 주었다. 패딩 라이너 인감과 특수 물당으로 제작한 해리저지 문장을 프린트한 라퍼 풋패드는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29만5천원. 레저 활동 시 양손을 자유롭게 해줄 크로스 보디 백으로 비세토스 모노그램 코디트 캔버스와 나피카죽의 시그니처 조합을 통해 MCM의 클래식한 장인 정신을 보여줄과 동시에 미니 지퍼 파우치와 탠버린 코인 파우치 일부분에 폴리에스터 소재 에코 퍼 장식으로 소재의 하이브리드적 믹스 매치를 보여준다. 스트랩, 파우치, 코인 파우치 모두 필요에 따라 함께 또는 따로 착용 가능해 실용적인 면모를 더했다. 79만5천원. 모두 MCM, 문의 02-2194-6700



Check-in
무채색 일색인 가을, 겨울 스트리트에 컬러 플로팅 패턴이 경쾌함을 불어넣는다. 디테일은 최대한 일어난 말쑥한 실루엣으로 레이아웃(가나, 스타일링에) 여백을 남기는 방식으로 재탄생한다.
방수 기능을 갖춘 테크니컬 소재로 제작된 스웨트셔츠, 캐빈원단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Soft knit
격식 있는 자리에서는 물론, 일상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고급 울 소재나 캐시미어 아이템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싱글 재킷이나 스웨터 같은 신중하고 근사한 스타일로 부드러운 남성성을 어필한다.
캐시미어 소재 패딩 터틀넥 가격 미정 로로피아나, 문의 02-546-0615
인공에 울을 적용한 캐시미어 재킷 3백60만원 에르메스/캐시미어 재킷, 문의 02-2092-6643

Winter Feeling

자유롭고 여유로운 애틀리튜드가 강조되는 요즘. 멋과 실용성 모두 아우르는 네 가지 소재.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Chic Leather
가죽 재질의 강렬한 매력을 부각하며, 다소 캐주얼한 분위기를 유도한다. 사파이어 컬러, 유얼더 보닛 등 상용적인 디테일을 기아에 자유분방한 애틀리튜드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사파이어 컬러 벨트 재킷 가격 미정 로로피아나, 문의 02-2092-6643, 카프 스카인으로 제작된 하이브리드 보퍼 레더 비키니 5백50만원 알렉산더 맥퀸, 문의 02-6105-2226



Velvet Strength
뉴트로 열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벨벳 테일러는 재킷이 트렌드를 주도한다. 구찌가 클래식에서 선보인 레드, 옐로, 그린 등 선명한 컬러가 주목 이었다. 셋업 슈트 스타일링을 즐기거나, 데님 팬츠와 패카렌에 데이 캐주얼에 이르러 웨어의 느낌을 아우르는 연출법을 추천한다. 에디터 이유미
에르메스 벨벳 재킷 440만원 구찌, 문의 02-3452-1921



creative innovation

클래식한 디자인과 혁신적인 기술력의 결합으로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새로운 오메가 스피드마스터가 탄생했다.



2

미 항공우주국(NASA)의 유인 우주선 아폴로 11호와 함께 역사적인 달 탐사 여정에 동행해 훗날 문워치(Moonwatch)로 불린 오메가의 타임리스 클래식 워치, 스피드마스터. 이 헤리티지를 전면 내세운 직경 43mm의 스페셜 스피드마스터 크로노스코프 컬렉션을 출시한다. 가장 큰 특징은 1940년대에 제작한 초창기 크로노그래프 워치로 회귀한 빈티지하고 클래식한 매력의 디자인이다. 역사적인 투-카운터 빈티지 크로노그래프 디자인을 재해석하면서 첨단 기술로 완성한 새로운 매뉴팩처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를 결합해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타임피스 탄생한 것.
오메가의 헤리티지를 상징하는 스피드마스터 컬렉션 중에서도 정교한 다이얼이 돋보이는 워치 디자인이 특징인데, 다른 문워치 시리즈와 달리 투-카운터 레이아웃을 기본으로 세 겹의 각기 다른 스케일로 구성된 스네일 패턴을 추가해 1940년대 오리진얼 크로노스코프에 대한 찬사를 담았다. 특유의 고풍스러운 인상을 주는 스네일 패턴 중 바깥쪽 링은 특정 구간의 평균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타키미터 스케일을, 가운데 링은 천동 반계가 칠 때와 같은 음속에 따른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텔레미터 스케일을, 가장 안쪽 링은 심박수를 측정할 수 있는 펄스미터 스케일을 표시한다. 실버와 화이트 바탕 및 투-카운터 서브 다이얼 컬러를 동일하게 처리한 모노크롬 다이얼 버전과 실버와 화이트 바탕에 투-카운터만 블랙으로 처리한 일명 판다 다이얼 버전, 블루 바탕에 투-카운터만 실버 처리한 역판다 다이얼 버전, 브라운에 가까운 브론즈 컬러 바탕에 투-카운터만 실버 오픈된 마감한 버전 등으로 다양하게 선보이며 선택의 폭을 넓혔다. 공통적으로 아플리케 타임의 아라비아숫자 인덱스와 나뭇잎을 연상시키는 리프 핸즈를 적용했고, 다이얼 및 베젤 인서트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도록 컬러를 매치해 럭셔리한 느낌을 더했다.
무브먼트는 새롭게 선보이는 인하우스 수동 크로노그래프 칼리버 9908을 장착했으며 60시간 파워 리저브를 보장하고 정확성의 상징인 코-액시얼 이스케이프먼트와 실리콘

© sponsored by OMEGA



3

밸런스 스프링을 적용해 1만5천 가우스 이상의 자기장 환경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탁월한 항자성을 인증받았다.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삽입한 시스루 형태의 케이스 백을 통해 아라베스크풍 제네바 웨이브 패턴과 함께 전체 로동 도금 처리한 독자적인 무브먼트를 감상할 수 있다. 스트랩은 각 케이스 컬러에 어울리는 스틸, 브라운 레더 소재로 맞추어 스타일의 완성을 돕는다. 가죽 스트랩 모델은 1천80만원, 스틸 브레이슬릿 모델은 1천1백20만원이며 브론즈 골드 모델은 1천8백20만원이다. 에디터 양민영

1.4 빈티지하고 정교한 스네일 디자인이 돋보이는 화이트-실버 바탕에 동일한 컬러의 투-카운터를 갖춘 버전. 2. 고급스러운 블루 다이얼에 화이트-실버 투-카운터 서브 다이얼의 역판다 버전. 3.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삽입한 시스루 케이스 백, 5. 리미티드 출시되는 브론즈 골드 모델로, 화이트-실버 투-카운터 서브 다이얼을 매치했다.



3



All in One. Hole in One

골퍼라면 누구든 흥미로워할 아이템으로 가득 채운 코브라 푸마 하우스가 오픈했다. 골프 클럽부터 의류, 골프화, 액세서리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골프 관련 용품을 소개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며, 맞춤 컨설팅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체험에 특화된 코브라 푸마 하우스 플래그십 스토어.

필드 위에서 진면목을 발휘하는 독보적인 기술력

코브라 클럽은 1973년 호주 아마추어 골프 챔피언 출신 토머스 크로우가 좀 더 다루기 쉽고 퍼팅하기도 쉬운 골프 클럽에 관심을 가지며 탄생했다. 클럽 유틸리티의 모태가 되는 '배플러'를 처음 출시하며 주목받기 시작했고, 1996년 더 길고 정확한 샷을 이끌어내는 '킹 코브라 II' 아이언과 '빅 오프셋'을 선보이며 골퍼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2010년에는 푸마와 만나 코브라-푸마 골프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리키 파올러, 필드의 물리학자 브라이언 디샬보, LPGA 장타자 렉시 톨슨 등과 함께하며 감각적인 디자인뿐 아니라 실험적이면서 사용자 관점에서 제작한 편의성을 고려한 여러 제품으로 호평받았다. 2011년 1월에는 국내에 정식 론칭했고, 포괄적인(inclusive), 즐거운(fun), 화려한(colorful), 기능성의(performance), 스타일리시한(stylish)을 주요 키워드로 내세우며 우수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이 돋보이는 제품 라인으로 세계 골프 시

장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코브라 푸마 하우스'는 명칭에서 연상할 수 있듯, 새롭게 문을 연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는 '코브라 클럽'의 다채로운 클럽 라인업을 비롯해 기능성 의류, 골프화, 용품을 판매하는 '푸마 골프' 컬렉션까지 함께 만날 수 있다.

체험에 특화된 골프 클럽 본질에 충실한 공간

아시아 최초이자 국내 유일의 골프 퍼포먼스 센터를 표명하며 국내 골프 시장의 메카 강남구 도산대로 일대에 자리 잡은 코브라 푸마 하우스에서는 차원이 다른 폭넓은 쇼핑 서비스를 제공한다. 드라이버와 퍼터, 아이언, 하이브리드 등 코브라 클럽 전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고, 직접 퍼팅해보며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클럽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자신의 체형과 취향에 맞는 골프 의류와 선호하는 용품 등 우수한 퍼포먼스를 위해 필요한 모든 용품의 윈스톱 쇼핑이



1 골프 플레이를 위해 머리부터 발끝까지(top-to-toe) 커버하는 경험과 구매가 가능한 윈스톱 쇼핑 공간. 2 개인만의 스윙 스타일을 분석해 적합한 클럽을 추천해주는 맞춤 컨설팅 서비스. 3 코브라 클럽을 대표하는 '라드 스피드(Rad Speed)' 드라이버 컬렉션부터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한 킹 퍼터 패밀리(King Putter Family) 컬렉션까지 아우르는 방대한 라인업. 4 코브라 클럽과 푸마 골프를 함께 큐레이팅해 선보이는 코브라 푸마 하우스 플래그십 스토어. 5 정확한 비거리의 장타력도 명성이 높은 코브라 푸마 골프의 글로벌 엠버서더 브라이언 디샬보. 6 7배워진 헤드 무게와 빠른 스윙 스피드로 비거리와 정확도를 높여주는 신제품 '라드 스피드' 드라이버. 7 GC QUAD 시스템을 갖춘 데이터를 활용해 스윙을 분석하고 최적 스펙의 클럽을 선택할 수 있다.



가능하다. 클럽의 진가는 직접 퍼팅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법이지 않은가. 코브라 푸마 하우스는 판매만 이뤄지는 일방향이 아닌, 골프 전문 퍼터가 최적의 클럽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클럽 및 용품 디스플레이 존, 클럽 피팅 존, 클럽 A/S 워크 룸 등 총 3개의 공간으로 구분해, 고객이 클럽 선택 후 시타 및 피드백까

지 한 공간에서 편안하고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 GC QUAD 시스템을 통해 고객들은 정확한 비거리, 방향, 발사각, 사이드스핀, 어택앵글, 스윙 궤도, 볼스피드 등의 데이터로 스윙을 분석해 최적 스펙의 클럽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 답안을 제시한다. 강남구 선릉로 153길 5 보성빌딩 1층. 문의 02-2136-1161 에디터 **이유이**

what's on my desk

듣고, 보고,
기록하고, 탐구하는 일에 대한 모든 것.
영감이 샘솟는 책상 위 '잡동사니' 예찬.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GG 수프림 캔버스 다이스 세트 55만원 구매, 문의 02-3452-1921, 오브제론도 손색없는 아이젠, 메탈에 옐로 키프 스킨을 입힌 풀루도 칼렉션 펜 1백만 원대,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밤낮 구분 없이 생활감 있는 영상파사전을 제공하
는 하이로 10 울렉 69만원 구매, 문의 1899-9966, 지온메트릭 G 프린트 노트 35만원 구매, 문의 02-3432-1821, 멜로 콜렉시 글라스에 모노그램 패턴을 입힌 미터 백 잠 & 키 홀더 1백만 원대, **루이비통**, 문의 02-3432-1821, 블랙 레인으로 완성한 깔끔한 비주얼
을 자랑하는 스타 워커 울트라 블랙 파인라이너 61만원 구매, 문의 02-554-0911, 72시간의 파워 라저는를 지원하는 L093, 1 매뉴얼 와이드 무브먼트로 구동하는 쇼샤이 신 워치 2천만 원대, **에르메스**, 문의 02-
542-6622, 강력한 거리 파악으로 촬영 선택에 도움을 주는 골프 거리 측정기 미니스타 투 프로 90만원 라이카, 문의 1661-0405, 최다 18시간 재생 가능한 콤팩트한 디자인의 배오사운드 A1 2세대 그린 컬러 36만 원대, **뱅앤올룹슨**, 문의 02-518-1380, 에디터 **이우이**



Hermès
섬세한 도자기 소재 위 스타에서 영감을 얻은 스토리를 유쾌하게 담아낸 것이 특징인 에르메스
테이블 웨어. 대표적으로는 그랜드 아티라워 컵플러가 있고, 최근에는 자기 실크와 민화의
세계에서 영감을 얻어 완성한 하모 모빌 칼렉션을 새롭게 선보였다. (크기순으로) 하모 모빌 타르트
플레이트 20만원대, 디지털 플레이트 20만원대, 브로드 앤 버터 플레이트 10만원대, 커피 잔과 소서
20만원대, 그랜드 아티라워 디지털 포크 40만원대 모두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Cartier
까르띠에 작품의 상징이 되어온 팬더를
각인해 선보이는 팬더드 까르띠에 칼렉션.
도자기 오브제, 트랑키티트레이, 하빙 등에서
나무 두 그루 사이에 장식된 팬더의 애호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위부터) 팬더드
까르띠에 하빙 미디엄 모빌 1백30만원대,
팬더드 까르띠에 솔라티에 보드
3백10만원대, 팬더드 까르띠에 트랑키티
트레이 70만원대, 팬더드 까르띠에 맨슬
홀더 80만원대 모두 **까르띠에**,
문의 1566-7277

modern table

가을 식탁에 유쾌함을
불어넣는 플레이트 셀렉션 4.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Royal Copenhagen
특유의 클래식 블루 패턴링 라인으로 특징지어지는
로얄코펜하겐은 2백40여 년의 전통을 이어온
덴마크 왕실 도자기 브랜드다. 자기 장식을
이용한 롤랑에서 패턴링, 굵기, 유약 처리 및
포장에 이르기까지 장인 30여 명의 손길을 거쳐
완성되며, 4년 이상의 공을 들여 닦아 장식
블루 패턴팅이 될 수 있다. 최근 다채로운 컬러를
적용한 알파인츠 칼렉션을 선보이며 라인업에
변수를 주었다. (위부터) 레온 컬러 구름 모양
접시 20만원, 아프리카 자그 18만원, 스카이
플레이트 15만5천원, 샌더 플레이트 13만5천원,
탄자닌 하이엔드 접과 소서 14만5천원 모두
로얄코펜하겐, 문의 02-749-2002



Ralph Lauren Home
이태리인 캐주얼로 정의되는 밀프 로렌이
선보이는 홈 칼렉션. 밀프 로렌을 상징하는 도시
뉴욕을 배경으로 앙상블된 테디베어를 그려 넣은
플레이트를 비롯해 머그 등 다채로운 제품을
선보였다. **헤이븐 시티 베어 머그 세트**, 디지털
플레이트 세트 모두 가격 미정 **밀프 로렌 홈**,
문의 02-6004-0220 에디터 **이우이**

editor's Pick

환절기, 건강하고 탄력 넘치는 피부를 위해! <스타일 조선큐일보>가 엄선한 이달의 뷰티템.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jeong jin young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스쿠 캠프트 립 플루이드 글로우 미니 #106 홀리데이 이블 기념 에디션 매트립 키트에 포함된 하프 사이즈 립 제품, 눈 속에서 빛나는 동백꽃에서 영감을 얻은 맑고 순수한 컬러를 담았다. 옐로 톤을 살짝 기미한 글레 머리스한 브라운 레드에서 스쿠 특유의 생생한 컬러감이 느껴진다. 부드럽게 발려 산명한 발색력을 발휘하고, 입술에 자연스러운 볼륨감과 윤기를 더해준다. 손끝에 묻혀 치료로 활용하면 립과 지연스킨케어 아우라트는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다. 3.3g 가격 미정. 문의 02-6905-3369. by 에디터 이수지

글레드포 보베 기든 오브 스톨렌더 칼렉션 립스틱 #519 펠스 레드 립을 줄기는 편인데 같은 하늘 아래 똑같은 레드는 없다는 뷰티계 진리처럼 이 컬러는 로즈 레드와 핑크를 두 방울 정도 떨어뜨린, 민발한 꽃을 표현하는 비비드한 핑크 레드 컬러라고 할 수 있다. 홀리데이 리미티드 칼렉션으로 출시한 케이스도 소장자. 4g 7만2천원. 문의 080-564-7700. by 에디터 장미윤

디올 뷰티 루즈 블러쉬 아틀라이트 오브 드림즈 #601 홀로그래프 디올 블러쉬 특유의 고급스러운 발색과 텍스처, 내추럴한 반짝임을 담은 디올 뷰티의 아이코닉한 제품인 루즈 블러쉬의 홀리데이 리미티드 에디션. 기존 제품들은 그대로 유지하되 파우더에 디올 하우스의 상징인 몽테뉴가 30번지 외관을 새겨 넣어 보는 즐거움까지 더해졌다. 6.7g 8만2천원. 문의 080-342-9500. by 에디터 장미윤

블리 1803 오피아 당테르 몽트 코리안드로 룽몽브르 입 속에 사용하는 제품이라 더 신중 써서 고르게 되는 차임. 이 차임은 천연 유래 성분만 담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전 블리 1803 제품을 사용했지만 이번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생체활을 주어 만족스럽다. 양치 후 입안에 멜로는 민트, 고수, 오이 향이 청량한 느낌을 선사한다. 75ml 3만9천원. 문의 1544-5114. by 에디터 장미윤

빈클라프 아벨 엑스트라오디너리 레 미모사 디오 섀도우 캔들 가을 미모사의 따뜻한 향, 피부처럼 가벼움, 비닐과 같은 부드러움을 담은 향. 발랄한 자취에 사워 후 따뜻한 차 한잔하며 맑다 노둔 정민스움을 다시 펼쳐 드니 천국이 따로 없다. 240g 12만2천원. 문의 080-800-8809. by 에디터 장미윤

팬탈리온스 워터스 핸드크림 핸드크림에 진심인 에디터의 마음을 사로잡은 제품이다. 자연의 치유력을 피부에 닿았다는 설렘처럼 작은 손 씻기 건조해진 손에 발랐더니 레몬과 바질, 아미 향이 손으로 고스란히 전달되는 듯한 느낌. 사체에 숨을 넣고 있는 듯 상쾌하고 신선하다. 75ml 4만5천원. 문의 02-3443-1805. by 에디터 장미윤

자형시 뷰티 르 9 도 자형시 리미티드 아이세도우 팔레트 골드와 핑크를 조화한 세련된 컬러감이 감이 있고 그윽한 분위기를 완성해준다. 텍스처에서는 극도의 섬세함이 느껴진다. 보이는 색상 그대로 발색되며, 기르, 세로, 사선 중 어느 방향으로 조합해도 활용도가 높다. 감각적인 블랙 벨벳 골드 패키지에 담아 선보인다. 8g 9만6천원. 문의 080-801-9500. by 에디터 이수지

데코르테 AQ 트리트먼트 바디 크림 보디 크림의 필수 조건은 가을, 겨울 건조한 피부에 충분한 보습감을 주면서 바로 옷을 입어도 무딘 느낌이 들 정도로 끈적이지 않는 미무리감이다. 이 보디 크림은 그 조건을 모두 갖췄다. 생크림같이 부드러운 텍스처는 물론 데코르테 특유의 고급스러운 쉐어인 향이 감각적인 리추얼을 돕는다. 200g 12만4천원. 문의 080-568-3111. by 에디터 장미윤

보아제 안슬리프터 세럼 탄력과 볼륨, 그리고 영양, 이 세 가지는 40대 중반으로 향하는 에디터에게는 미션 같은 단어들. 세안 후 토너로 피부를 정리하고, 이 세럼을 발라주었더니 칙칙 발리는 느낌이 쏙 사라지고, 수분과 영양이 풍부하게 공급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살짝 끈적여 아침에는 자중에 더 적당하다. 30ml 43만원. 문의 02-310-5025. by 에디터 장미윤

브리오나 EDP 이블리아 최고의 테일러 브랜드 브리오나에서 만든 향수답게 수트와 잘 어울리는 스타일리시한 느낌의 브리오나 향이 일품이다. 강렬한 첫 노트를 거쳐 소프트하고 따뜻한 비아울렛을 지나 재치처럼 정교하게 마무리되는 깨끗한 시더우드 향의 베이스 노트까지. 정장을 짝 매인은 이블리아 신사의 모습이 떠오른다. 100ml 15만4천원. 문의 080-363-5454. by 에디터 장미윤

샤넬 뷰티 플루이드 엔투아티르 오로 아이보리 수외 말하는 '고급 윤광'을 부여하는 아이젠. 메이크업 전 얼굴 전체에 바르거나 콧등, 이마 중심같이 입체적으로 보일 때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레이아웃해도 좋다.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운 하이라이터 효과를 선사하기에, 내추럴 메이크업을 추구하는 이에게 추천한다. 30ml 7만2천원. 문의 080-332-2700. chanel.com. by 에디터 이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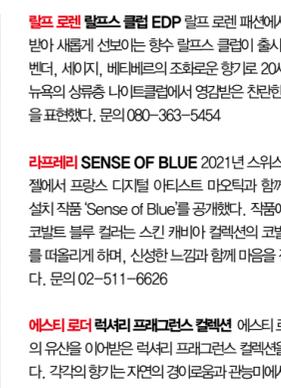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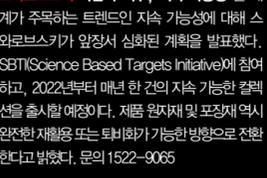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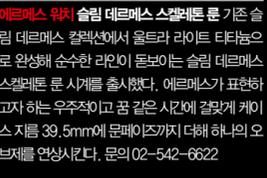
산타 마리아 노벨라 파렌체 1221 에디션 #로사 노벨라 만만함 장미 정원을 거니는 듯, 장미가 메인으로 활약해 싱그럽고 순수한 봄의 향을 이룬다. 레몬과 페티그랑을 조합한 시트러스 향조가 맑은 기운을 전하고, 야제 파슬리, 페퍼를 조미료처럼 더해 한층 감미롭고 부드러운 진행을 느낄 수 있다. 무려 탄생 8백 주년을 기념해 특별한 투명 보틀에 담아 선보인다. 100ml 18만원. 문의 1644-4490. by 에디터 이수지

에르메스 뷰티 레 영 에르메스 네일 에-젤 #오랑주 브리즈 33 매뉴 특유의 섬세하고 감각적인 247지 색조로 구성했다. 그중 상징적인 오렌지 톤을 담은 버진. 실세한 라운드 브러시가 정교하고 일관하게 발려, 선풍하고 순수한 발색을 구현한다. 71% 천연 성분으로 이루어진 내추럴 포뮬러로, 손톱에도 자극적이지 않다. 15ml 6만3천원. 문의 02-310-5174. by 에디터 이수지



SHOWROOM

JEWEL&WATCH



스위스퍼펙션
리프리카리 SENSE OF BLUE 2021년 스위스 아트 바젤에서 프랑스 디자널 아티스트 마오티크와 함께 콜업형 설치 작품 'Sense of Blue'를 공개했다. 작품에 사용한 코발트 블루 컬러는 스킨 캐비어 칼렉션의 코발트 블루를 떠올리게 하며, 신성한 느그와 함께 마음을 진정시킨다. 문의 02-511-6626

에스티 로더 럭셔리 프라그런스 칼렉션 에스티 로더 여사의 유산을 이어받은 럭셔리 프라그런스 칼렉션을 출시했다. 각각의 향기는 자연의 경이로움과 관능미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새로운 독점 기술을 통해 최대 12시간 지속된다. 문의 02-6971-3212

리프리카리 SENSE OF BLUE 2021년 스위스 아트 바젤에서 프랑스 디자널 아티스트 마오티크와 함께 콜업형 설치 작품 'Sense of Blue'를 공개했다. 작품에 사용한 코발트 블루 컬러는 스킨 캐비어 칼렉션의 코발트 블루를 떠올리게 하며, 신성한 느그와 함께 마음을 진정시킨다. 문의 02-511-6626

에스티 로더 럭셔리 프라그런스 칼렉션 에스티 로더 여사의 유산을 이어받은 럭셔리 프라그런스 칼렉션을 출시했다. 각각의 향기는 자연의 경이로움과 관능미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새로운 독점 기술을 통해 최대 12시간 지속된다. 문의 02-6971-3212

리프리카리 SENSE OF BLUE 2021년 스위스 아트 바젤에서 프랑스 디자널 아티스트 마오티크와 함께 콜업형 설치 작품 'Sense of Blue'를 공개했다. 작품에 사용한 코발트 블루 컬러는 스킨 캐비어 칼렉션의 코발트 블루를 떠올리게 하며, 신성한 느그와 함께 마음을 진정시킨다. 문의 02-511-6626

에스티 로더 럭셔리 프라그런스 칼렉션 에스티 로더 여사의 유산을 이어받은 럭셔리 프라그런스 칼렉션을 출시했다. 각각의 향기는 자연의 경이로움과 관능미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새로운 독점 기술을 통해 최대 12시간 지속된다. 문의 02-6971-3212

리프리카리 SENSE OF BLUE 2021년 스위스 아트 바젤에서 프랑스 디자널 아티스트 마오티크와 함께 콜업형 설치 작품 'Sense of Blue'를 공개했다. 작품에 사용한 코발트 블루 컬러는 스킨 캐비어 칼렉션의 코발트 블루를 떠올리게 하며, 신성한 느그와 함께 마음을 진정시킨다. 문의 02-511-6626

에스티 로더 럭셔리 프라그런스 칼렉션 에스티 로더 여사의 유산을 이어받은 럭셔리 프라그런스 칼렉션을 출시했다. 각각의 향기는 자연의 경이로움과 관능미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새로운 독점 기술을 통해 최대 12시간 지속된다. 문의 02-6971-3212

리프리카리 SENSE OF BLUE 2021년 스위스 아트 바젤에서 프랑스 디자널 아티스트 마오티크와 함께 콜업형 설치 작품 'Sense of Blue'를 공개했다. 작품에 사용한 코발트 블루 컬러는 스킨 캐비어 칼렉션의 코발트 블루를 떠올리게 하며, 신성한 느그와 함께 마음을 진정시킨다. 문의 02-511-6626

에스티 로더 럭셔리 프라그런스 칼렉션 에스티 로더 여사의 유산을 이어받은 럭셔리 프라그런스 칼렉션을 출시했다. 각각의 향기는 자연의 경이로움과 관능미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새로운 독점 기술을 통해 최대 12시간 지속된다. 문의 02-6971-3212

리프리카리 SENSE OF BLUE 2021년 스위스 아트 바젤에서 프랑스 디자널 아티스트 마오티크와 함께 콜업형 설치 작품 'Sense of Blue'를 공개했다. 작품에 사용한 코발트 블루 컬러는 스킨 캐비어 칼렉션의 코발트 블루를 떠올리게 하며, 신성한 느그와 함께 마음을 진정시킨다. 문의 02-511-6626

에스티 로더 럭셔리 프라그런스 칼렉션 에스티 로더 여사의 유산을 이어받은 럭셔리 프라그런스 칼렉션을 출시했다. 각각의 향기는 자연의 경이로움과 관능미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새로운 독점 기술을 통해 최대 12시간 지속된다. 문의 02-6971-3212

리프리카리 SENSE OF BLUE 2021년 스위스 아트 바젤에서 프랑스 디자널 아티스트 마오티크와 함께 콜업형 설치 작품 'Sense of Blue'를 공개했다. 작품에 사용한 코발트 블루 컬러는 스킨 캐비어 칼렉션의 코발트 블루를 떠올리게 하며, 신성한 느그와 함께 마음을 진정시킨다. 문의 02-511-6626

에스티 로더 럭셔리 프라그런스 칼렉션 에스티 로더 여사의 유산을 이어받은 럭셔리 프라그런스 칼렉션을 출시했다. 각각의 향기는 자연의 경이로움과 관능미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새로운 독점 기술을 통해 최대 12시간 지속된다. 문의 02-6971-3212

리프리카리 SENSE OF BLUE 2021년 스위스 아트 바젤에서 프랑스 디자널 아티스트 마오티크와 함께 콜업형 설치 작품 'Sense of Blue'를 공개했다. 작품에 사용한 코발트 블루 컬러는 스킨 캐비어 칼렉션의 코발트 블루를 떠올리게 하며, 신성한 느그와 함께 마음을 진정시킨다. 문의 02-511-6626

에스티 로더 럭셔리 프라그런스 칼렉션 에스티 로더 여사의 유산을 이어받은 럭셔리 프라그런스 칼렉션을 출시했다. 각각의 향기는 자연의 경이로움과 관능미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새로운 독점 기술을 통해 최대 12시간 지속된다. 문의 02-6971-3212

리프리카리 SENSE OF BLUE 2021년 스위스 아트 바젤에서 프랑스 디자널 아티스트 마오티크와 함께 콜업형 설치 작품 'Sense of Blue'를 공개했다. 작품에 사용한 코발트 블루 컬러는 스킨 캐비어 칼렉션의 코발트 블루를 떠올리게 하며, 신성한 느그와 함께 마음을 진정시킨다. 문의 02-511-6626

에스티 로더 럭셔리 프라그런스 칼렉션 에스티 로더 여사의 유산을 이어받은 럭셔리 프라그런스 칼렉션을 출시했다. 각각의 향기는 자연의 경이로움과 관능미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새로운 독점 기술을 통해 최대 12시간 지속된다. 문의 02-6971-3212

리프리카리 SENSE OF BLUE 2021년 스위스 아트 바젤에서 프랑스 디자널 아티스트 마오티크와 함께 콜업형 설치 작품 'Sense of Blue'를 공개했다. 작품에 사용한 코발트 블루 컬러는 스킨 캐비어 칼렉션의 코발트 블루를 떠올리게 하며, 신성한 느그와 함께 마음을 진정시킨다. 문의 02-511-6626

에스티 로더 럭셔리 프라그런스 칼렉션 에스티 로더 여사의 유산을 이어받은 럭셔리 프라그런스 칼렉션을 출시했다. 각각의 향기는 자연의 경이로움과 관능미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새로운 독점 기술을 통해 최대 12시간 지속된다. 문의 02-6971-3212

리프리카리 SENSE OF BLUE 2021년 스위스 아트 바젤에서 프랑스 디자널 아티스트 마오티크와 함께 콜업형 설치 작품 'Sense of Blue'를 공개했다. 작품에 사용한 코발트 블루 컬러는 스킨 캐비어 칼렉션의 코발트 블루를 떠올리게 하며, 신성한 느그와 함께 마음을 진정시킨다. 문의 02-511-6626

에스티 로더 럭셔리 프라그런스 칼렉션 에스티 로더 여사의 유산을 이어받은 럭셔리 프라그런스 칼렉션을 출시했다. 각각의 향기는 자연의 경이로움과 관능미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새로운 독점 기술을 통해 최대 12시간 지속된다. 문의 02-6971-3212

리프리카리 SENSE OF BLUE 2021년 스위스 아트 바젤에서 프랑스 디자널 아티스트 마오티크와 함께 콜업형 설치 작품 'Sense of Blue'를 공개했다. 작품에 사용한 코발트 블루 컬러는 스킨 캐비어 칼렉션의 코발트 블루를 떠올리게 하며, 신성한 느그와 함께 마음을 진정시킨다. 문의 02-511-6626

에스티 로더 럭셔리 프라그런스 칼렉션 에스티 로더 여사의 유산을 이어받은 럭셔리 프라그런스 칼렉션을 출시했다. 각각의 향기는 자연의 경이로움과 관능미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새로운 독점 기술을 통해 최대 12시간 지속된다. 문의 02-6971-3212

IWC PILOT. ENGINEERED FOR ORIGINALS.



— Big Pilot's Watch Perpetual Calendar. Ref. 5036: 빅 파일럿 워치의 짙은 블루 다이얼은 퍼페추얼 캘린더의 매력을 한층 더 부각시켜줍니다. 1980년대 Kurt 클라우스(Kurt Klaus)가 개발한 기계식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서로 다른 월별 일수와 윤년을 고려해 날짜를 표시해 줍니다. 펠라톤 와인딩 시스템, 2개의 배럴과 7일의 파워리저브를 갖춘 IWC 자체제작 52615 칼리버는 완벽한 정교함을 보장합니다. IWC. ENGINEERING DREAMS. SINCE 1868.

**DOWNLOAD THE NEW IWC APP
FOR VIRTUAL TRY-ON**

IWC-manufactured 52615 calibre · Pellaton automatic winding system · 7 days power reserve · Perpetual calendar with display for the date, day, month and year · See-through sapphire-glass back · Water-resistant 6 bar · Diameter 46.2 mm · Stainless steel

IWC Schaffhausen, Switzerland · www.iwc.com

IWC
SCHAFFHAUSEN